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AI, 지역맞춤형
도시 혁신의 기반 다지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2025.7.10.

국토교통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지자체 공모 선정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개하였다.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일종의 ‘도시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도시문제가 부처나 기관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데이터 허브는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여러 영역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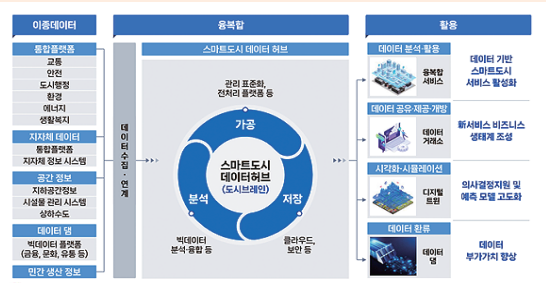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는 교통 혼잡 완화, 기후변화 대응, 범죄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도시정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적용해 지역 맞춤형 도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 결과

선정 지자체	시범솔루션 주요 내용
울산광역시	전기, 수도 등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AI 예측형 빈집 관리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 AI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제천시 공동 수행)	인구소멸 위험도 예측 등 AI 기반 분석플랫폼

출처: 국토교통부, (2025.7.10), 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보도자료].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부, (2025.5.15), 도시의 브레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한다 [보도자료].